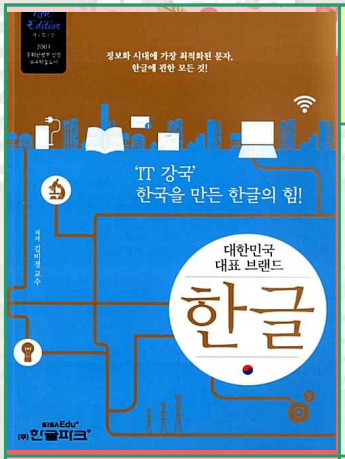
오창미술전시관 '한글이 예술이다' 연계 북큐레이션 1(한글의 역사와 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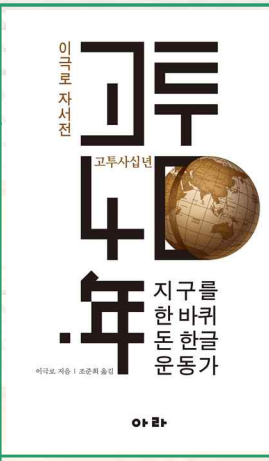


■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한글
■ 김미경 지음
(711.2-김39ㅎ)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이해는 자기 긍정에 목마른 한국인에게 한류와는 또 다른 차원의 자긍심과 자신감을 확인해 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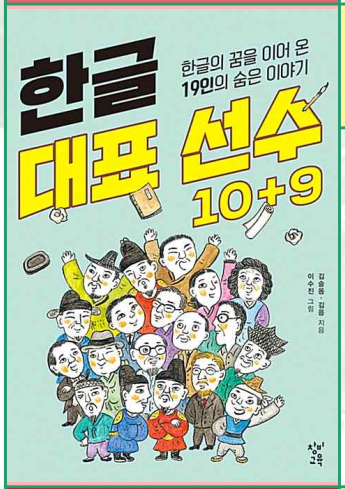
■ (한글만세)주시경과 그의 제자들
■ 이상각 지음
(911.06-이51ㅈ)

이 책은, 조선어학회 사건이 순수 학술연구를 일제가 모략하여 조작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말글을 말살하려는 일제의 탄압에 맞선 언어독립투쟁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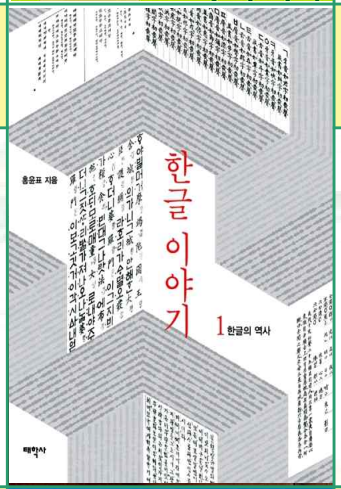
■ 고투사십년
■ 이극로 지음
(710.99-이18ㄱ조)

일제강점기 시절 한글운동가 이극로의 자서전. 이 책은 자작시, 그리고 부록으로 제자의 열전 두 편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 상해, 미국 시찰기, 길돈사건, 조선어학회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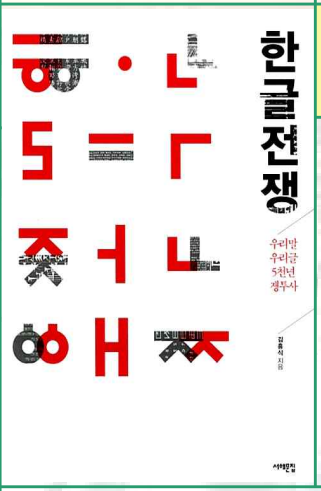
■ 한글 대표 선수 10+9
■ 김슬옹 지음
(711.2-김68ㅎ)

한글을 천대하고 한글을 쓰지 못했던 시기에 한글을 지키고 가꾼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조선 시대의 인물 10명과 근현대의 인물 9명의 일화를 소개한다.



■ 한글 이야기 1, 2
■ 홍윤표 지음
(711.2-홍67ㅎ-v.1, 2)

600년 가까이 이어져온 한글의 세계가 그렇게 어렵기만 한 것일까? 국어학자 홍윤표 교수가 재미있게 풀어쓴 한글 이야기를 통해 한글의 세계로 한 발 한 발 다가서는 여행을 떠나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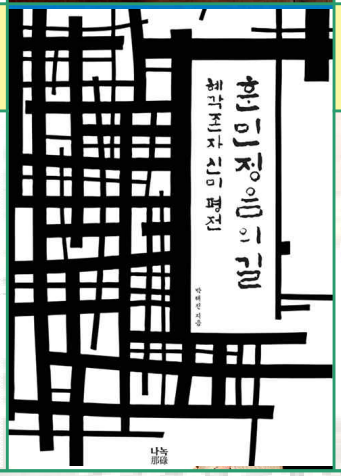


■ 한글전쟁
■ 김흥식 지음
(711.2-김98ㅎ)

우리글이 오천년 한반도 역사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는지를 보여주는 말글 쟁투사. 한자, 영어, 외세어와 싸우고 내부의 사대주의자와 한판 승부를 벌이며 쓰러져도 일어나는 우리말 우리글의 저력을 확인해보자

■ 활자 흔적
■ 이용제 지음
(658-이66ㅎ)

두 명의 한글 활자 연구자가 활자꼴의 변천을 거슬러 올라가 한글의 서체의 역사를 찾고자 한다. 20세기 초반을 거쳐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 까지의 한글의 변천사를 추적해보자



■ 훈민정음의 길
■ 박해진 지음
(710.99-박92ㅎ=c.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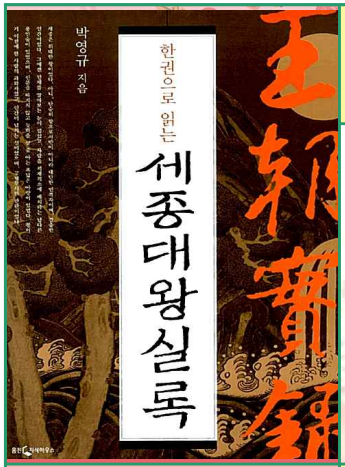
전 세계 문자의 우뚝한 봉우리인 소리문자 훈민정음(한글) 창제의 비밀과 교육, 확산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한 책이다. 삭제된 훈민정음 창제의 핵심 인물인 혜각존자 신미스님의 적을 남김없이 찾아내 균형을 잡았다.

"한 나라가 잘되고 못 되는 열쇠는 그 나라의 국어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있다"

- 주시경 선생 (1876-191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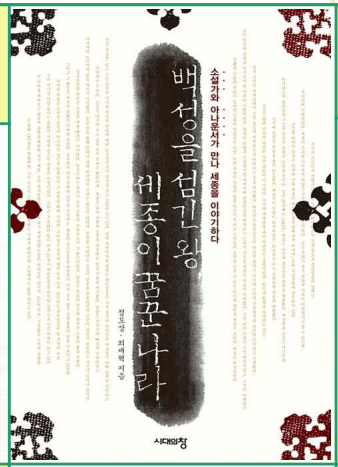
청주오창호수도서관

오창미술전시관 '한글이 예술이다' 연계 북큐레이션 2(세종대왕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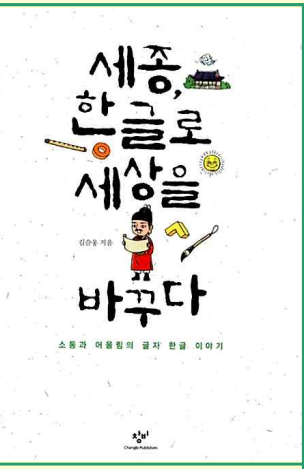
■ (한권으로 읽는)세종대왕실록
■ 박영규 지음
(911.052-박64ㅅ)

지은이 박영규가 조선 역사 중 가장 찬란한 시대를 일궈낸 세종대왕에 대한 모든 것을 한권으로 이야기한 책. 세종실록을 바탕으로 더욱 풍부하고 깊이 있게 세종시대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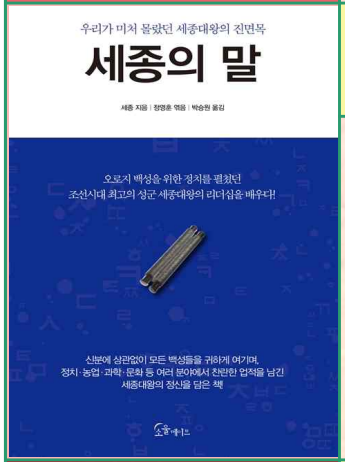
■ 백성을 섬긴 왕, 세종이 꿈꾼 나라
■ 정도상 지음
(911.052-정225ㅂ)

MBC 특집 다큐멘터리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담은 책. 최재혁 아나운서가 영상을 통해 다 담아내지 못했던 세종에 대한 이야기를 소설가 정도상과 함께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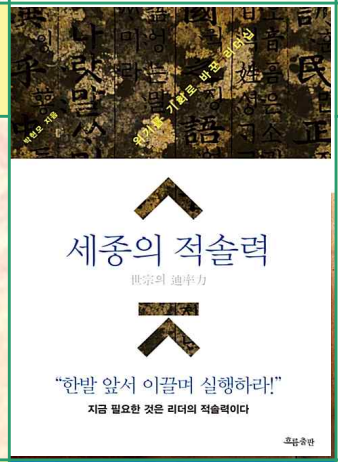
■ 세종, 한글로 세상을 바꾸다
■ 김슬옹 지음
(711.2-김58ㅅ)

제3회 창비 청소년 수상작. 문자의 힘을 일찍이 간파한 임금 세종과 그가 만든 문자 '훈민정음'에 대해 풀어 쓴 청소년 교양서로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는 물론, 한글의 우수성까지 조목조목 짚어 내었다.



■ 세종의 말
■ 정영훈 지음
(199.8-세75ㅅ박)

<세종실록>, <연려실기술> 등의 문헌들에 근거해 세종대왕이 직접 했던 말들을 한데 모아 한 권의 책으로 엮어낸 어록집이다. 주관적인 해석보다는 객관적인 시선으로 세종대왕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했다.



■ 세종의 적솔력
■ 박현모 지음
(325.24-박94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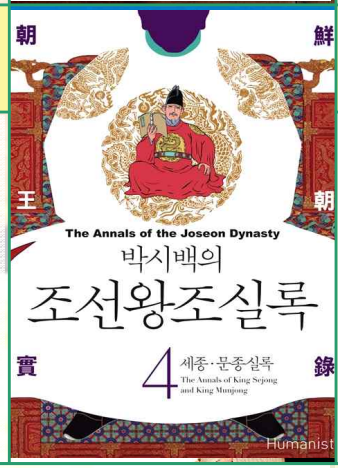
세종리더십연구소장 박현모 교수의 책. 이 책은 '세종실록'에서 찾을 수 있는 무수한 어록 중에 오늘날 리더들에게 의미 있는 통찰력과 새로운 리더십 교훈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52개의 사자성어로 구성했다.

■ 세종이 들려주는 역사이야기
■ 정수국 지음
(911.05-정57ㅅ)

세종이 1441년에 편찬한 치평요람을 발췌하여 엮은 책. 세종은 역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우리나라와 중국의 역대 사적 중에서 귀감이 될 사실을 추려 책을 편찬했고 이가 곧 치평요람 이다.

■ 세종처럼
■ 박현모 지음
(325.24-박94ㅅ)

총163권 154책으로 구성되어 있는 방대한 <세종실록>의 요체를 국가의 최고경영자이자 리더인 세종을 주인공으로 두고 입체적으로 통찰하고 현재적으로 망라한 책이다.



■ 조선왕조실록 : 세종실록
■ 박시백 지음
(911.05-박59ㅈ-v.4)

방대한 조선왕조실록 국보기록을 박시백 화백이 20권의 만화로 재탄생시켰다. 이 책은 그 중 4번째 책으로 세종과 문종 시대를 다루고 있다.

"고기는 씹을수록 맛이 난다. 그리고 책도 읽을수록 맛이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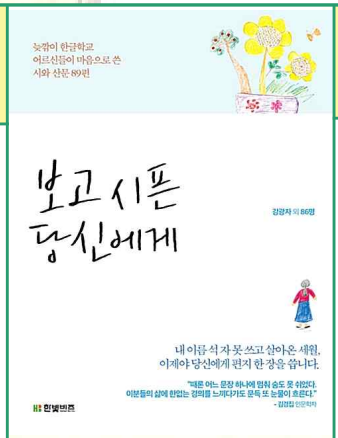
- 세종대왕 (1397-1450) -

청주오창호수도서관

오창미술전시관 '한글이 예술이다' 연계 북큐레이션 3 (한글과 문학)

■ 구운몽
■ 김만중 지음
(813.5-김31ㄱ정)

《구운몽》(九雲夢)은 서포 김만중이 1687년 선천 유배 시절 어머니 윤씨 부인의 한가함과 근심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었다고 전해지는 한국 고 한글소설의 대표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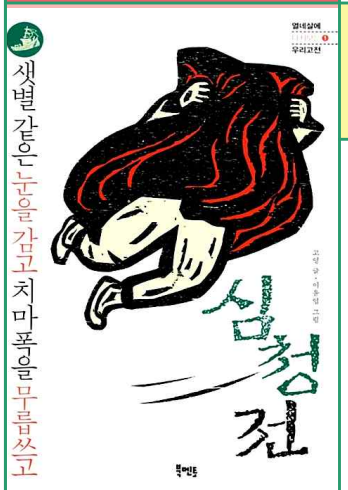


■ 보고 시픈 당신에게
■ 강광자 지음
(810.82-보15ㅎ)

전국의 한글학교에서 늦깎이로 한글을 배우고 있는 어르신들의 시와 산문 89편을 엮은 책이다. 뒤늦게 글자를 익히면서 느끼는 기쁨과 안타까움, 고단하고 애틋했던 삶이 담겨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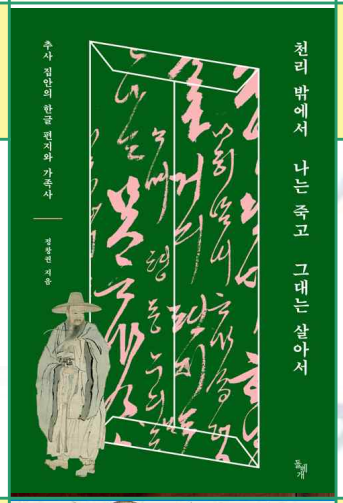
■ 뿌리 깊은 나무. 1, 2
■ 이정명 지음
(813.7-이73ㅃ-v.1, 2)

세종 시대를 배경으로 연쇄 살인사건을 다룬 이 소설은, 흠잡을 데 없이 치밀한 복선,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반전, 현실감이 넘치는 스토리전개로 한국형 팩션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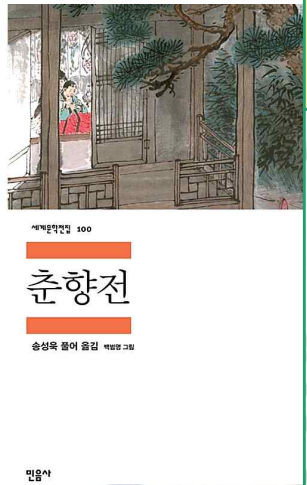
■ 심청전
■ 고영 지음
(813.5-고64ㅅ)

고어(古語)와 고사(故事)를 주석 없이 읽을 수 있는 오늘의 언어로 풀고, 오늘의 시선을 담은 작품 해설로 작품을 독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부록 열한 꼭지가 어우러져 '심청'의 진면모를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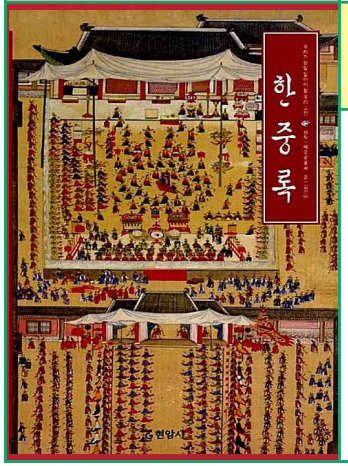
■ 천리 밖에서 나는 죽고 그대는 살아서
■ 정창권 지음
(911.05-정811ㅊ)

한글 편지로 보는 추사 김정희 집안의 5대 가족사 이야기. 이 편지는 추사 김정희를 비롯하여 선대와 후대 등 모두 5대의 가족이 주고받은 한글 편지 85통을 수록했다. 추사 집안의 5대 가족사 이야기가 장대하게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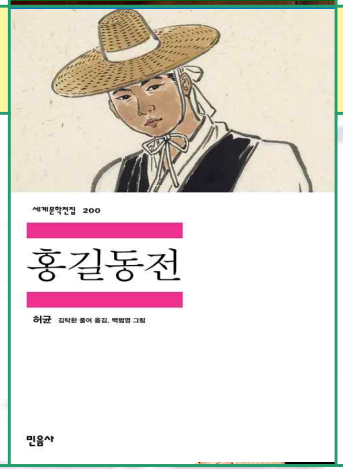
■ 춘향전
■ 송성욱 옮김
(808-세14ㅁ-v.100)

춘향전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전 소설로, 조선시대의 한글소설이며, 판소리계 소설이다. 완판 '열녀춘향수절가' 84장본과 경판 '춘향전' 30장본을 저본으로 옮겼고, 완판 '열여춘향슈졀가' 영인본을 수록했다



■ 한중록
■ 혜경궁 홍씨 지음
(813.5-혜14ㅎ)

'한중록'은 '계축일기', '인현왕후전'과 함께 3대 궁정 수필로 일컬어지며, 한글로 된 궁정 문학의 백미(白眉)이다. 불행했던 왕세자비, 혜경궁 홍씨가 기록한 한글 고전.



■ 홍길동전
■ 허균 지음
(808-세14ㅁ-v.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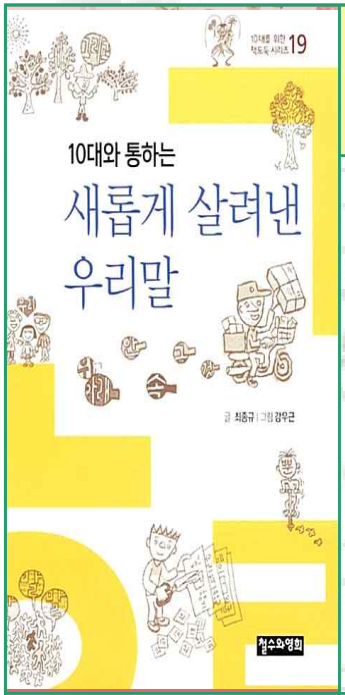
최초의 한글소설로 알려진 허균의 <홍길동전>을 소설가 김탁환이 풀어 옮기고, 백범영 화백이 삽화를 그려 넣었다. 조선 사회에 대한 예리한 비판과 새로운 사회를 향한 갈망, 그리고 율도국으로 대표되는 이상향에 대한 그리움이 병존한다.

"불휘 기픈 남근 브른매 아니 뮐씨(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움직일새)"

- 용비어천가 (144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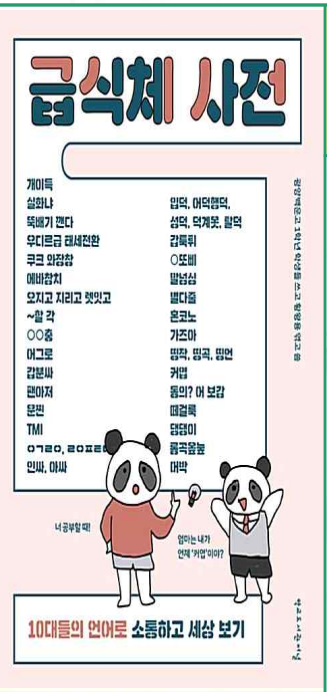
청주오창호수도서관

오창미술전시관 '한글이 예술이다' 연계 북큐레이션 4 (현재의 한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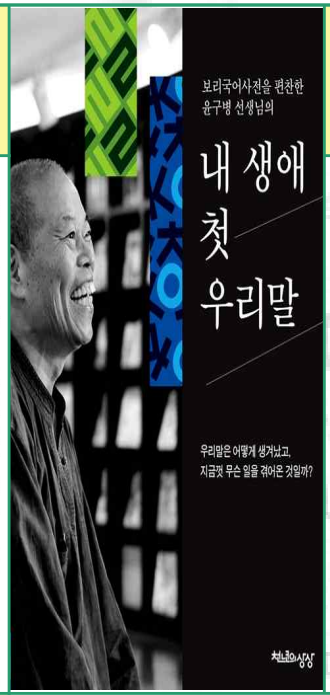
■ 새롭게 살려낸 우리말
■ 최종규 지음
(711.2-최75ㅅ)

이 책은 국어사전이나 교과서에서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잘못 쓰는 말투를 차근차근 짚으면서, 청소년 스스로 한국말을 새롭게 배워서 슬기롭게 쓰는 길을 보여 준다.



■ 급식체 사전
■ 광양백운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지음
(710.13-광62ㄱ)

급식체는 청소년들끼리 쓰는 은어다. 이 책은 10대들이 자주 쓰는 급식체 단어들의 의미는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 쓰는지 알려주며, 급식체를 매개로 자녀와 부모가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 내 생애 첫 우리말
■ 윤구병 지음
(710.4-윤17ㄴ)

<보리국어사전>의 편찬자 윤구병 선생님이 들려주는 우리말 이야기. 70여 년을 우리말로 살아온 저자가 처음으로 펴낸 우리말 책이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지 않았던 우리말 이야기, 처음 듣는 우리말 이야기를 담았다. 곧 우리말 속에 담겨 있는 신화와 역사 그리고 문화를 풀어놓는다.

■ 놀다보니 한글이 똑!
■ 이정민 지음
(598.6-이73ㄴ)

쉽고 재미있게 엄마와 아이가 놀면서 한글을 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다. 아이의 기질을 시각형, 청각형, 체각형으로 나누어 그 성향에 맞는 놀이들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서, 엄마도 아이도 즐겁게 할 수 있다.

■ 뚝딱! 엄마랑 한글 떼기 책이랑 친구 되기
■ 강진하 지음
(598.58-강79ㄸ)

이 책은 단지 한글을 배우고 아이가 스스로 책을 읽게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어떻게 존재 그대로 사랑할 것인가를 느끼게 해준다. 또한 다양한 놀이를 통해 한글을 익히게 해주므로 엄마는 힘들이지 않고 아이는 함박웃음을 터뜨리며 할 수 있다.

"한글이 한국인을 위해 생각해 낼 수 있는 모든 문자들 가운데 최고이든 아니든 간에, 한글은 의심할 여지없이 인류의 가장 위대한 지적 성취 중 하나로 꼽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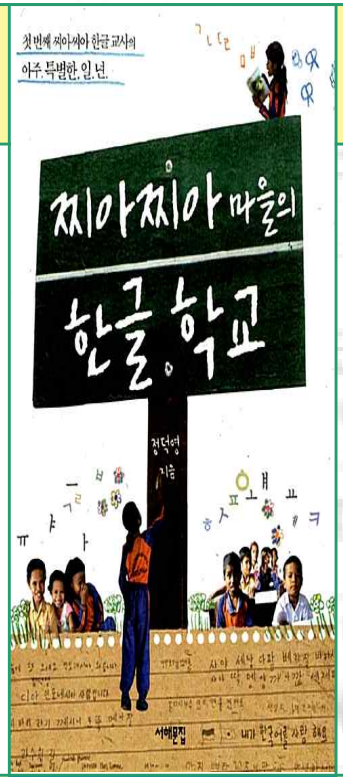
-제프리 샘슨(Geoffrey Sampson)-
英 서식스大 교수, 문자학자, 언어학자

청주오창호수도서관

오창미술전시관 '한글이 예술이다' 연계 북큐레이션 4 (현재의 한글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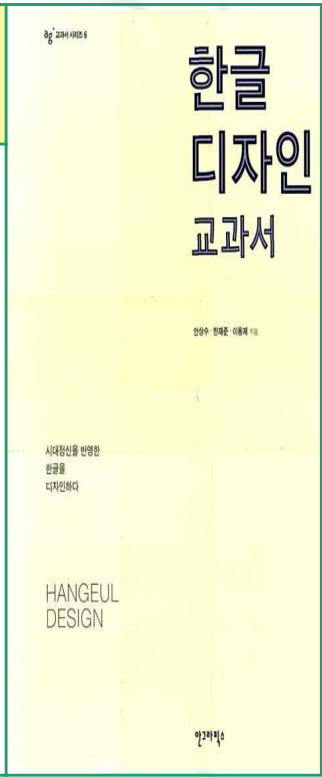
■ 우리말, 가슴을 울리다
■ 조현용 지음
(710.1-조94ㅇ)

한국어 어휘와 한국인의 사고 그리고 깨달음의 문제를 깊이 탐구해 온 조현용 교수. <우리말, 가슴을 울리다>는 <우리말 깨달음 사전>, <우리말로 깨닫다>에 이은 세 번째 책이다. 오랫동안 어휘를 연구해 온 저자는 고유어와 한자어 그리고 외래어 등을 오가며 그만의 예민한 촉수로 어휘 내면에 담긴 의미를 풀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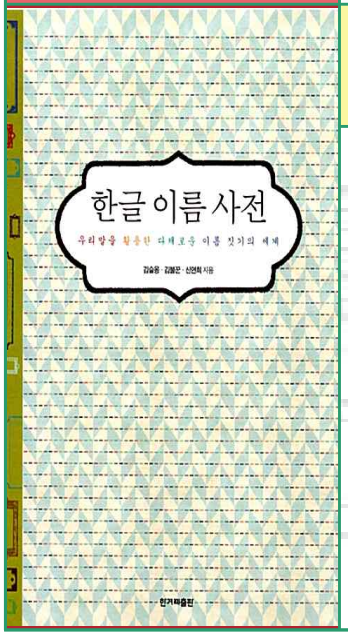
■ 찌아찌아 마을의 한글 학교
■ 정덕영 지음
(818-정223ㅉ)

자신들의 고유한 언어는 가지고 있었지만, 문자가 없어 문화와 역사를 기록하지 못했던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 2008년 8월 찌아찌아족은 한글로 자신들의 말을 표기하기로 결정했고, 2010년 초 그들에게 한글을 가르칠 교사가 파견되었다. 이 책은 찌아찌아족 최초의 한글 교사 정덕영이 1년간 인도네시아 부톤 섬에서 겪은 이야기를 모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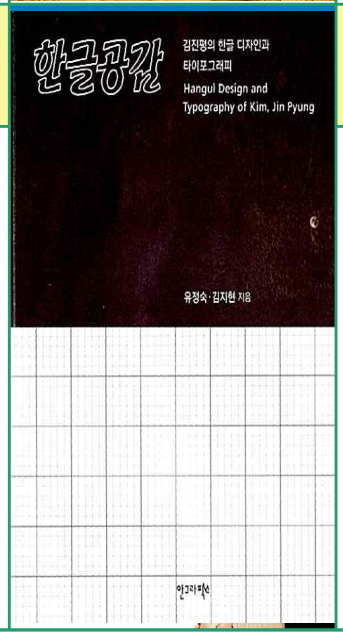
■ 한글 디자인 교과서
■ 안상수 지음
(658-안51ㅎ)

이 책은 한글을 바르게 디자인하기 위한 기본자세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다룬 것으로, 한글디자인의 바른 방향 제시는 물론 시각디자이너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작업 과정의 태도와 고도의 훈련 과정을 스스로 깨칠 수 있도록 구성했다.



■ 한글 이름 사전
■ 김슬옹 지음
(188.3-김58ㅎ)

아이의 이름을 짓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엄마 아빠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짓는 것이다. <한글 이름 사전>은 이러한 용도에 걸맞게 누구나 의미 있고 좋은 이름을 지을 수 있는 훌륭한 안내서로 만들어졌다.



■ 한글공감
■ 유정숙 지음
(658-유73ㅎ)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거장으로 우리 시대를 살다 간 한글디자이너 고 김진평의 한글 디자인을 소개한다. 이 책은 2005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연구 보고서의 일부를 발췌, 보충하고 재정리한 것으로, 그의 제자인 유정숙 교수와 김지현 교수가 한글 디자이너 김진평의 업적을 기리고 추모하는 마음으로 진행한 작은 연구이다.

"세종이 만든 28자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알파벳이자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표기법 체계이다."

- 재레드 다이아몬드(Jared Diamond) -

美 캘리포니아 의과大 생리학자, 퓰리처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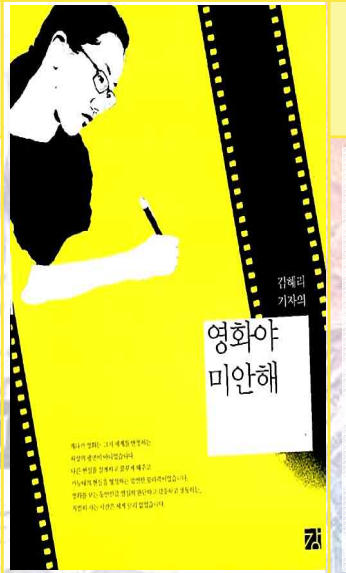
청주오창호수도서관

예술 더 함 북큐레이션 도서(2021년 1월-3월)

('영화' 를 '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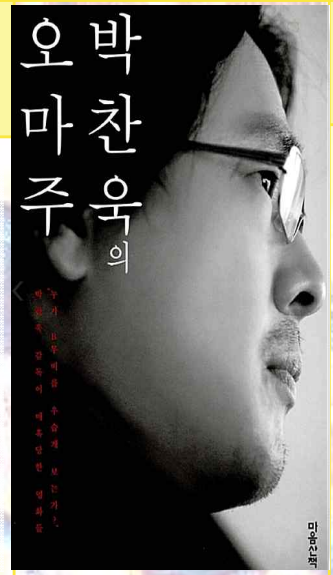
■ (거의없다의)방구석 영화관
■ 거의 없다 지음
(688.04-거68ㅂ)

세계 최초로 망한 영화들만 골라 리뷰하는 '거의없다','망한 영화 걸작선'으로 명성을 떨치게 된 그가 이번에는 웬일로 이제껏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았던 인생 영화 걸작선과 영화에 얽힌 그의 삶을 텍스트로 녹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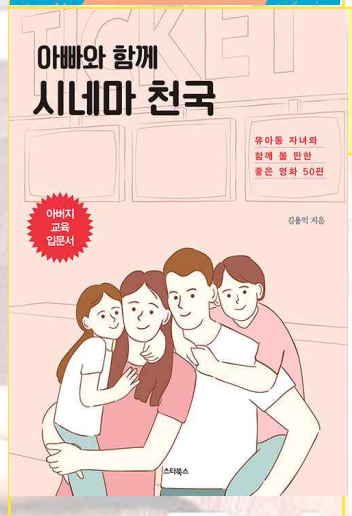
■ (김혜리 기자의)영화야, 미안해
■ 김혜리 지음
(688.09-김94ㅇ)

영화 리뷰로 영화 주간지 「씨네21」 독자들을 사로잡은 김혜리 기자. 그녀가 그간 자신이 쓴 영화 이야기들을 묶어 첫 번째 책을 펴낸다. 10년 넘게 영화기자이자 평론가로 활동하며 쓴 글들 중 일부를 뽑아 엮은 영화 에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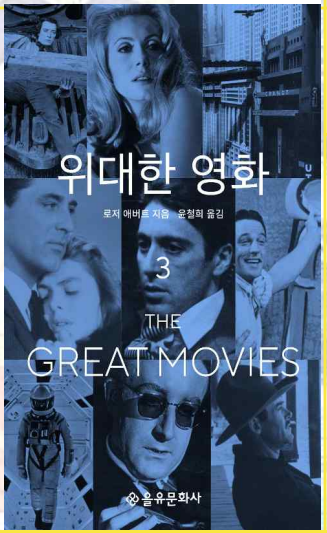
■ 박찬욱의 오마주
■ 박찬욱 지음
(688.09-박811ㅂ)

감독 이전에 영화평론가로 활동했던 박찬욱의 첫 번째 평론집. <영화보기의 은밀한 매력 - 비디오드롬>(1994)의 개정증보판. 박찬욱 감독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영화, 더 나아가 영화 장르 전체에 바치는 '오마주 hommage'라 할 수 있는 책이다.



■ 아빠와 함께 시네마 천국
■ 김용익 지음
(688.04-김66ㅇ)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영화와 함께 떠나는 즐거운 여행.
한 번은 꼭 받아야 할 아버지교육의 입문서.
유아동 자녀와 함께 볼만한 좋은 영화 50편.



■ 위대한 영화 1 - 4
■ 로저 에버트 지음
(688.09-에43ㅇ윤-1-4)

세계적인 영화 평론가 로저 에버트의 비평집.
이 시리즈는 저자가 갑상선암 투병 끝에 죽음을 맞이한 마지막 순간까지 써 내려간 필생의 기록이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쓰는 만인의 비평가, 로저 에버트가 전하는 영화 평론의 정수를 만나 보자.

"가장 완벽한 계획이 뭔지 알아? 무계획이야." (기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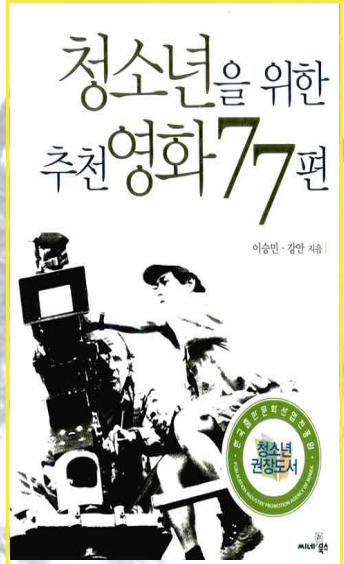
기생충(Parasite, 2019), 봉준호

※ 전시 안 된 도서는 대출 중인 도서입니다.

청주오창호수도서관
Established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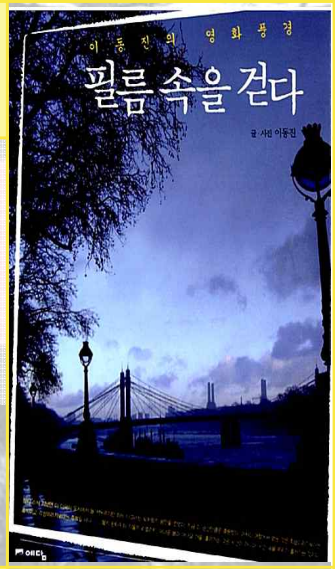
예술 더 함 북큐레이션 도서(2021년 1월-3월)

('영화' 를 '읽다')



■ 청소년을 위한 추천영화 77편
■ 이승민 지음
(688.04-이58ㅊ)

영화광 아빠와 동화작가 엄마가 아이들과 울고 웃으며 함께 본 77편의 영화를 통해 역사와 예술, 자연과 인생을 배우는 영화 읽기 안내서다. 교과서가 가르치지 못하는 학교 밖의 세상을 영화라는 창을 통해 만나고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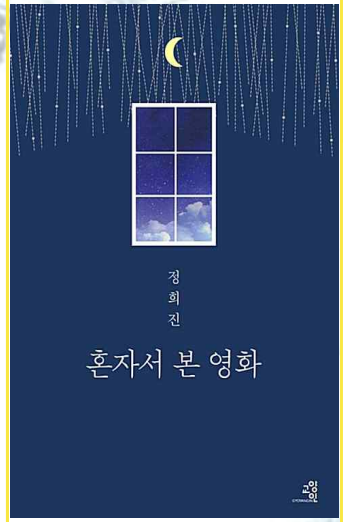


■ 필름 속을 걷다
■ 이동진 지음
(688.04-이225ㅍ)

영화전문기자인 이동진이 영화 속 실제 장소를 찾아 본 감상과 경험을 담은 여행 에세이. <러브레터>, <비포 선셋>, <러브 액츄얼리>, <화양연화> 등 다양한 영화가 탄생한 풍경으로 독자를 인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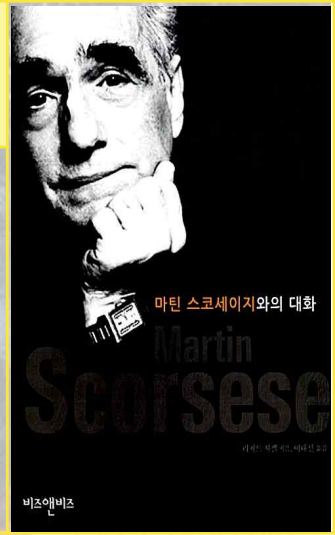
■ 한국영화 100선
■ 한국영상자료원지음
(688.0911-한17ㅎ)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영화학자와 평론가, 영화계 종사자 등 62인이 뽑은 한국영화 100선을 발표하고 개별 작품들에 대한 평론들을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한국영화의 역사를 정리하고 대표 작품들을 소개함으로써 우리 영화의 가치를 되짚어보는 책이다.



■ 혼자서 본 영화
■ 정희진 지음
(688.09-정98ㅎ)

한국 페미니즘 담론의 최전선에 서 있는 여성학자이자 '영화광'인 정희진이 20년 동안 꼭꼭 쌓아 둔 영화에 관한 내밀한 기록이다. 저자가 '내 인생의 영화들'로 꼽는 28편의 영화가 담겼다.



■ 마틴 스코세이지와의 대화
■ 리처드 시켈 지음
(688.09-에43ㅇ윤-1-4)

기생충으로 아카데미 감독상,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 그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존경을 표한 감독 마틴 스코세이지.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라는 말의 모티브가 된 책으로 스코세이지가 감독한 작품들에 대한 대담 이야기이다.

I thought my life was a tragedy, but it was a comedy.
(Joaquin Phoenix on Joker)
난 내 인생이 비극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코미디였어.
조커(JOKER, 2019), Todd Philli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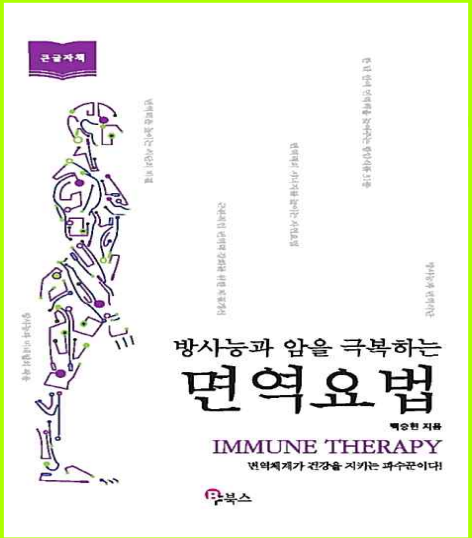
※ 전시 안 된 도서는 대출 중인 도서입니다.

청주오창호수도서관
Established 2016

★ 실버세대를 위한(노인)추천 도서(2021년 1-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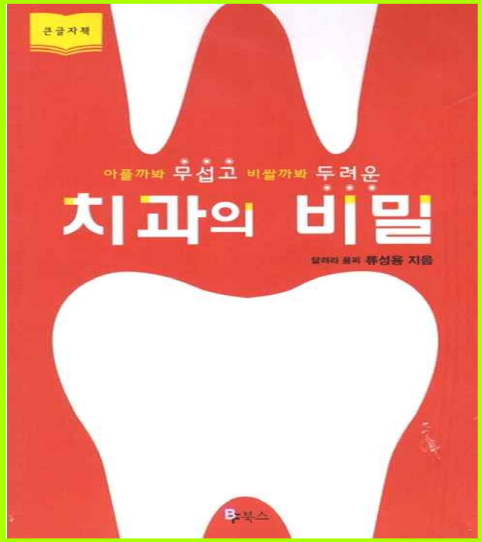
'큰 글자로 읽는 건강지키는 법'

※본 코너에 없는 도서는 현재 대출중인 도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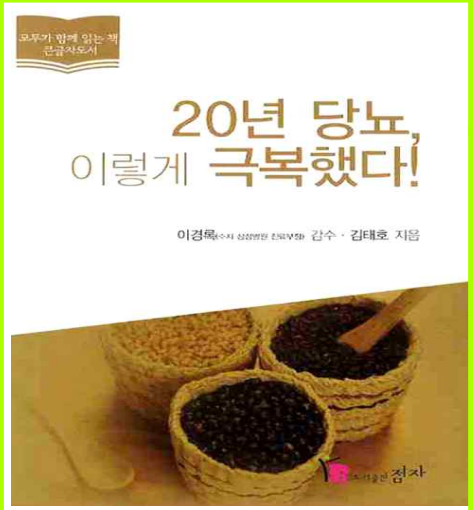
1. 방사능과 암을 극복하는 면역요법

방사능과 암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인 면역요법을 제시한 책이다. 나아가 쾌활(활동력), 쾌식, 쾌변, 쾌면, 쾌성의 방법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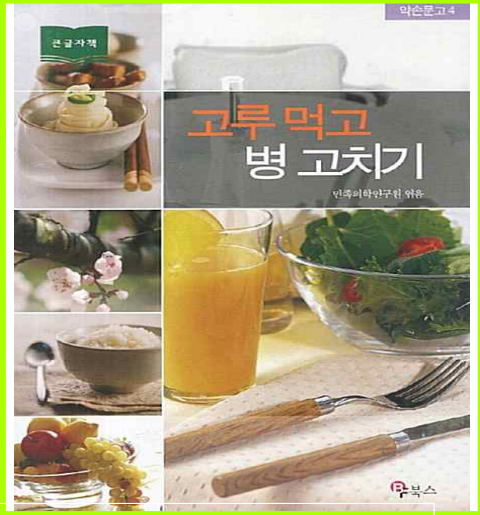
2. 치과의 비밀

동물의 왕 사자도 아파 고통스러워 하는 것이 치통이다. 이 책은 올바른 치아관리와 치과에 대해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정리하였다.



3. 20년 당뇨, 이렇게 극복했다!

노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질환인 당뇨, 지금은 젊은이층도 당뇨에서 자유롭지 않다. 저자의 당뇨를 이겨내는 법을 알아보자



4. 고루 먹고 병 고치기

요즘 '슬로푸드' 나 '로컬푸드' 가 유행하고 있다. 이러한 착한 먹을거리의 선택 및 보존, 음식으로 체했을때의 방법을 담고 있다.

청주오창호수도서관

★ 실버세대를 위한(노인)추천 도서(2021년 1-3월)

'큰 글자로 읽는 건강지키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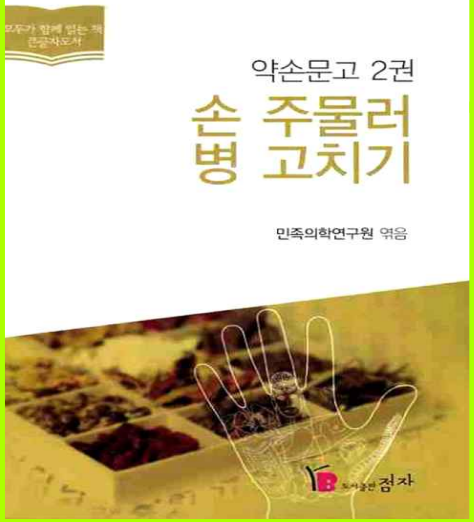
※본 코너에 없는 도서는 현재 대출중인 도서입니다.

5. 나는 살기 위해 자연식한다

저자는 40대의 나이에 암 판정을 받도 좌절했으나 자연생활을 하며 치유하고 현재까지 활동중에 있다. 그의 자연식 건강법과 생활태도를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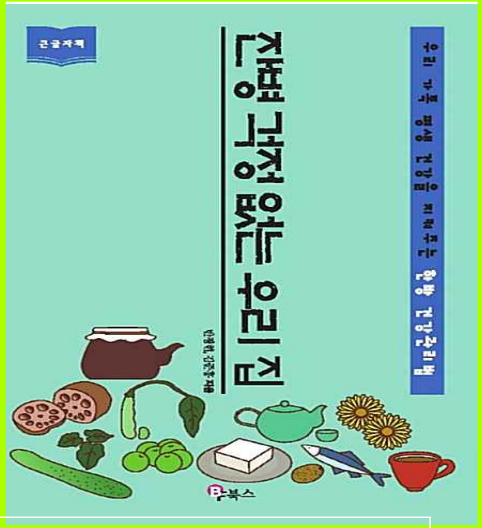
6. 당뇨와 자연요법

저자는 당뇨를 3단계로 극복 할 수 있다고 본다. 당뇨를 발견했을 때와 치료법, 그리고 이를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것이다.



7. 손 주물러 병 고치기

손과 발은 동양의학에서 몸의 거울로 표현할 만큼 오장육부와 관련있다고 본다. 이 책은 특히 손에 관련한 마사지법과 경혈법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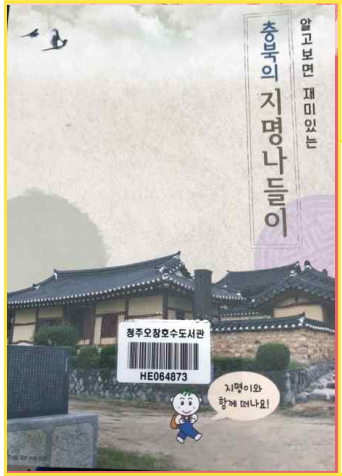
8. 잔병 걱정 없는 우리 집

이 도서는 자녀부터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가족들을 지키기 위한 건강법을 소개한다.

청주오창호수도서관

‘글 빛는 고을 청주(향토도서)’ 추천 도서

〈 2021년 1-3월 〉



■ 충북의 지명나들이
■ 신경직 지음
(향 981.1-신14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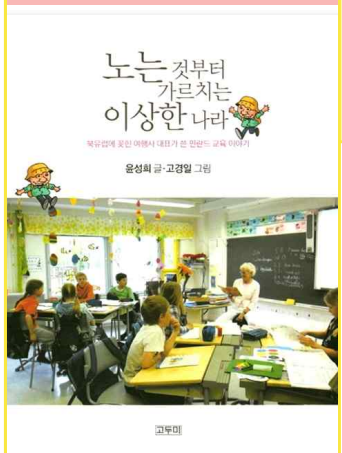
충북의 지명의 유래와 역사적 배경을 아이에게 설명해주듯이 서술한 책.
내 아이들에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수백년을 넘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된다.

■ 갈참나무 숲으로
■ 김은숙 지음
(향 814.7-김68ㄱ)

청주출신의 작가인 김은숙 작가의 산문집이다. 작가는 교사 재직시의 제자들과의 따스한 경험을 수필으로 표현하기도 하며, 창작한 시를 수록하여 책에 깊이를 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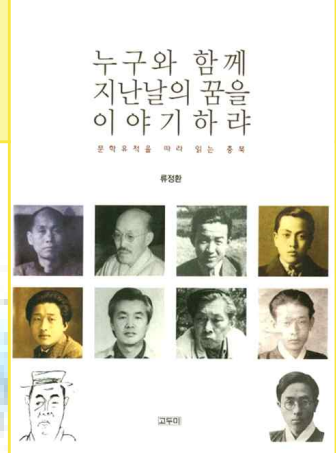
■ 구더기 점프하다
■ 권서정 외 지음
(향 814.7-권55ㄱ)

지금 우리는 너무도 빠른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런데 여기, 느릿느릿 나아가는 두 사람이 있다. 바로 권씨 집안 아버지와 딸이다. 이 두 사람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주위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서성이며, 맑은 마음으로 공감하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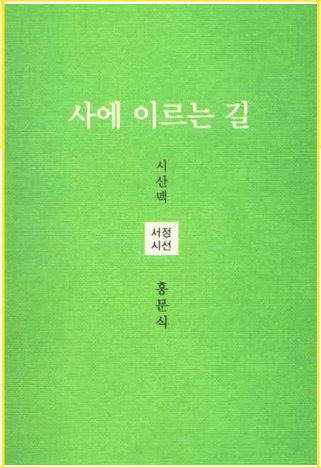
■ 노는 것부터 가르치는 이상한 나라
■ 윤성희 지음
(향 370.9236-윤53ㄴ)

청주에서 여행사 대표를 하고 있는 저자가 쓴 핀란드 교육이야기. 저자는 선생님들의 해외 교육연수를 전문으로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교육 선진국인 핀란드의 교육과 교육정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랴
■류정환 지음
(향 816.7-류73ㄴ)

작가는 충북이 배출한 문인들, 정지용 시인, 홍명희 선생 등을 회고하고 충북지역에 대한 역사적 사건 및 개인적인 술회를 책에 담아냈다.



■사에 이르는 길
■홍문식 지음
(향 811.7-홍37ㅅ)

평생을 초등교육에 헌신한 저자는 시인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이 시집은 2017년 세종도서 문학나눔에 선정된 바 있다.

상생충북(BOOK)이란?

충북지역출판, 동네서점살리기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지역출판사가 발행한 지역작가의 책을 추천도서로 선정하여
우리 지역의 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운동

청주오창호수도서관